



이현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

죄의식에 대한 탐구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죄의식에 대한 탐구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품 『죄와 벌』을 통해 죄의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시도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죄와 벌,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을 탐구해보자.

학습 목표

- 도스토예프스키의 삶
- 『죄와 벌』의 주요 문제의식
- 『죄와 벌』에서 에필로그가 갖는 의미
-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는 삶과 구원의 관계

강사 소개

• 이현우

서평가, 한림대 연구교수.

러시아 문학 전공. ‘로쟈’라는 필명으로 서평 및 칼럼 연재. 저서 『로쟈의 인문학 서재』 『책을 읽을 자유』 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죄의식에 대한 탐구
- 강사 : 이현우 (서평가)
- 구성 : 2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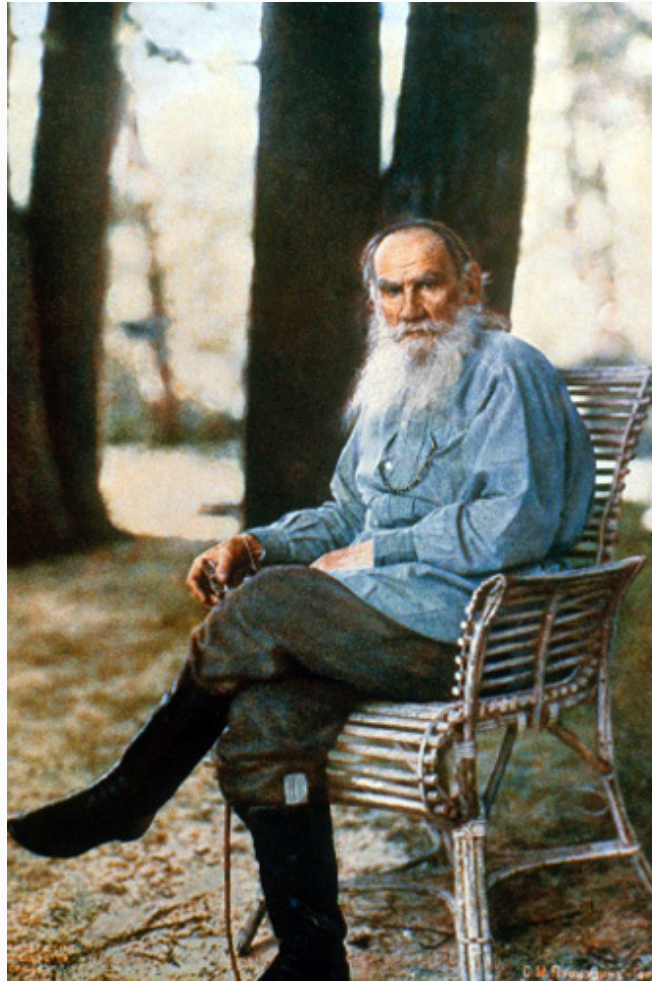
지식 노트



도스토예프스키(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1821~1881)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로, 러시아 근대 소설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악령』 『죄와 벌』 등의 작품을 남겼다.

지식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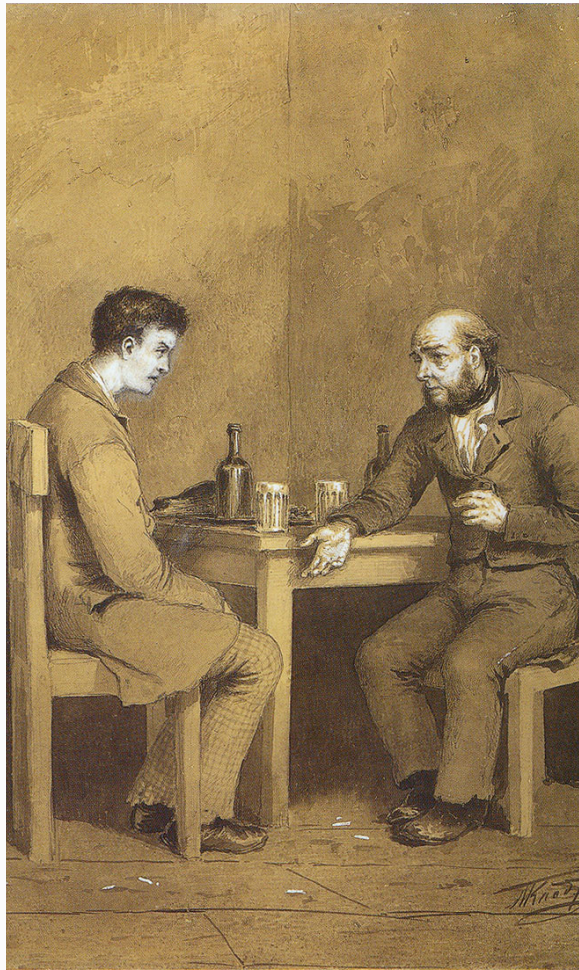


톨스토이

(Lev Nikolaevich Tolstoy, 1828~1910)

러시아의 소설가, 시인, 극작가. 인간의 심리와 역사에 대한 치열한 고찰을 작품으로 승화시켰으며, 세계 문학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작품 『전쟁과 평화』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 다수

지식 노트



『죄와 벌』

(Prestupleniye i nakazaniye, 1866)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뒷거리를 배경으로 하며,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청년, 라스콜리니코프(Raskolnikov)의 고뇌를 그리고 있다.

강의 노트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의 작품 성향

- 도스토예프스키: 비극적, 연극적 소설
- 톨스토이: 서사적 소설

당대 러시아의 신분제

- ① 귀족
- ② 잡계급(상인, 성직자, 의사 등)
- ③ 나로드(농노, Narod)

아버지가 의사였던 도스토예프스키는 잡계급 출신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으며, 원고료 또한 많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작품에서는 돈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죄와 벌』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누구인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열여덟 살이던 1839년,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되는데, 프로이트는 이 사건이 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초자아와 부친 살해를 설명할 때,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광적인 신문 애독가’로서 유럽의 신문, 잡지들을 통해 당대의 현실에 민감하게 촉수를 내밀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주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울먹이는 문체’에 담아서 아버지에게 보냈다. 그렇게 받은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써버렸다고 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평생 도박 빛에 시달린 것으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에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합리주의(合理主義)

이성과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 법칙에 의해 세계가 축조되고 인간이 해명될 수 있다는 입장

도스토예프스키는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심으로, 필연을 벗어난 우연의 세계에 속한 도박에 매혹을 느꼈다.

『우리 시대의 영웅』(1840)

러시아 작가 미하일 레르몬토프(Mikhail Yur'evich Lermontov, 1814~1841)의 장편소설

도스토예프스키는 합리주의를 혐오하여 작품 전체에서 합리주의를 공박한다.

『지하 생활자의 수기』(1864)

도스토예프스키의 중편소설로, 그의 다른 작품을 읽어내는 열쇠와도 같다고 평가된다. 과거 작품을 탈피하여 미래의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 스스로의 전환점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다.

Prestupleniye

러시아어로 ‘죄’, ‘도를 넘다’는 뜻. 영어의 overstep과 유사한 의미이다.

『죄와 벌』의 구성: 6부와 에필로그

이 중 1부에서만 ‘죄’를 다루고 작품의 나머지 부분은 ‘벌’을 다루는 데 할애되었다.

『죄와 벌』의 ‘죄’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이 초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당포 주인 노파를 살해한 행위

에필로그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양심이 편안하다”고 말한다.

형사상의 벌은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덜어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벌’이 고통을 가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미라면, 이 작품에서 형사상의 벌은 오히려 고통을 덜어주고 있다. 형벌에 처해지기 전, 양심의 고통이야말로 진정한 벌의 의미를 갖는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양심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죄와 벌』의 에필로그는 이 작품에서 문제적 부분으로 평가된다.

『죄와 벌』을 다루는 영화는 대부분 주인공이 자수를 하는 장면(6부)에서 끝난다. 즉 에필로그를 다루지 않는다.

『죄와 벌』의 에필로그는 군더더기인가, 꼭 필요한 부분인가?

작품의 결말까지도 주인공이 속죄하고 사건이 정리되는 식의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뒷이야기인 에필로그는 반드시 필요하다.

에필로그는 여전히 주인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와 만나 둘의 처지가 같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동일시하게 된다.

살인이나 매춘이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를 자기와 같은 죄인으로 인식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녀와 자신의 차이점을 에필로그에서 처음으로 인지한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엎드려 속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또한 에필로그

→ 따라서 이 작품에서 에필로그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작품

도스토예프스키의 후기 작품은 인물이 가진 이념(사상)이 작품을 주도한다.

→ 『죄와 벌』의 경우는 3부에 소개되는 ‘초인 사상’

빈곤에 허덕이고 고독에 짓눌린 주인공은 고독의 사색에서 독창적 이론인 초인(超人)사상을 체계화한다.

그는 자신이 초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무자비한 전당포 주인 노파를 죽인다.

라스콜리니코프에 따르면 인간의 두 부류, 범인(凡人)과 비범인(非凡人)에게는 각기 다른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비범인의 예 :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많은 전쟁을 치렀으나 범죄자가 아니라 전쟁 영웅이다. 범인은 단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에 불과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초인 사상을 소설 속 인물에게 구현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실험했다.

작품 『죄와 벌』의 구도

소냐 - 라스콜리니코프 - 스비드리가일로프
3인의 대립 관계

라스콜리니코프, 소냐, 스비드리가일로프 세 사람은 모두 선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초인에 해당한다.

인물들이 선을 넘는 이유

스비드리가일로프 :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라스콜리니코프 : 자신의 이론을 입증하고,

자신이 비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라스콜리니코프의 딜레마

소냐의 길을 갈 것인가,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길을 갈 것인가?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길을 가게 되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살을 택한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선택지

①도주 ②자살 ③자수

라스콜리니코프는 여러 차례 자살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만 결국 모두 실패한다.

작품 전체에 걸쳐 라스콜리니코프의 자살 혹은 자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지연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이 고통의 단계를 거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죄와 벌』에서 자살과 자수가 끝없이 지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원은 결코 고통을 우회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고통과 수난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변증법에 따르자면, 인간의 구원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에서 출발한다.

학습 요약

- 도스토예프스키는 귀족이 아닌 잡계급 출신으로 부유하지 못했으며, 도박에 손을 대는 일이 많아서 평생 빚에 쫓기며 살았다.
- 『죄와 벌』에서 ‘벌’은 법률상의 형벌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친 양심의 가책이다.
- 『죄와 벌』의 에필로그를 군더더기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 주인공이 소냐와 자신의 차이점을 자각하고 속죄하는 중요한 사건이 에필로그에서 이루어지므로 에필로그는 반드시 필요하다.
-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죄에 의한 고통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문 퀴즈

1.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로 러시아 근대 소설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이다. 다음 중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1) 『죄와 벌』(Prestuplenie i nakazanie, 1866)
- (2) 『전쟁과 평화』(Voina i mir, 1869)
- (3) 『카라마조프의 형제들』(Bratya Karamazovy, 1880)
- (4) 『악령』(Besy, 1872)

2. 1866년 출간된 이후 세계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러시아의 소설 『죄와 벌』은 총 6부로 구성되어있으며, ‘죄’를 다루는 1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벌’에 대해 다루는 데 할애된다. 다음 중 『죄와 벌』에서 ‘벌’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단어는?

- (1) 징역 판결 (2) 죽음 (3) 육체적 외상 (4) 양심의 가책

인문 퀴즈

3.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저작 『죄와 벌』을 통해 ‘인간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 중 이 소설에서 드러난 인간이 구원을 받기까지의 단계를 도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죄-고통-구원 (2) 고통-형벌-구원
(3) 고통-죄-구원 (4) 죄-형벌-구원

정답

1. (2) 2. (4) 3. (1)

1. (2)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의 작품이다.
2.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 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이는 ‘형벌’이라는 의미의 ‘벌’과는 별개의 벌이다.
3. (줄거리 상)인간은 고통에 의해 구원받으며 고통을 위해 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Klodt_Michail_Petrovich_-_Raskolnikov_and_Marmeladov.jpg

지식 노트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Dostoevskij_1876.jpg
- http://en.wikipedia.org/wiki/File:L.N.Tolstoy_Prokudin-Gorsky.jpg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Klodt_Michail_Petrovich_-_Raskolnikov_and_Marmeladov.jpg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죄의식에 대한 탐구

강사: 이현우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